



기획시리즈



임경빈  
농학박사

# 조경수목산책 (Ⅱ X Ⅸ)

## — 회화나무 —

### 1. 생각나는 고향의 회화나무

이 나무는 흔하게 심어지고 있어서 대개의 사람들은 어떤 나무 인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근간에 가로수, 녹음수, 풍치로 많이 심어졌고 그 전에는 그러하지도 못했다.

내가 자라난 시골 동네에는 감나무, 밤나무, 팽나무 이외에는 별반 큰 나무들이 없었는데 마을 어귀쪽 샘(우물) 뒷편에 큰 회화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동네 어른들이 부채를 들고 이 나무 아래로 모인 것을 안다. 요란한 매미소리는 더욱수록 강도를 높여 나갔고 태양의 열기는 매미의 생리를 그만큼 부추겨 주었다. 그래서 이 회화나무의 모습은 나의 기억에 잘 남아 있다.

이 상황에 멋지게 어울리는 시 한 구절이 있는데 어찌 그것을 읊



▲조계사 연등과 회화나무 1998. 4. 8(음)

지않고 지나갈 수 있겠는가. 송나라 시대의 시문장가 소식(蘇軾)의 시가 그것이다.

白水滿時雙鷺下 백수만시쌍로하  
綠槐高處一蟬吟 녹괴고처일선음

깨끗한 물이 가득 고이게 되면

두 마리의 백로가 내려앉고 푸른 회화나무 높은 곳에 한 마리 매미가 노래하고 있다.

이 얼마나 순수한 자연이 아닌가. 때문지 않은 완벽한 원시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내려앉은 백로는 암수 한 쌍이었을 것이다. 이

시 속의 회화나무의 매미란 어찌  
그렇게도 나의 고향을 그대로 묘  
사한 것일까. 이렇다면 나는 나의  
고향의 자연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곳 시 쓴 사람은 유유하  
게 여름의 더위를 보내고 있는 듯  
하다.

## 2 槐와 槐

회화나무는 회나무로 말하는  
일이 있다. 회 또는 회는 모두 槐  
라는 중국수목명에서 온 것으로  
본다. 이 나무는 꽃이 특히 염료  
로 숭상되고 또 약으로도 쓰였기  
에 꽃을 돋보이게 해서 회화(槐  
花)나무란 이름도 얻은 것으로 본  
다. 높게 자라고 수명이 길고 응  
장한 몸집으로 된다. 우리나라에  
자라는 나무로서 몸집이 크게 되  
기로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팽나  
무, 왕버들 그리고 회화나무 쯤이  
아닐까한다. 말하자면 5대 거구수  
종으로 말할 수 있다. 이에 외래



▲회화나무의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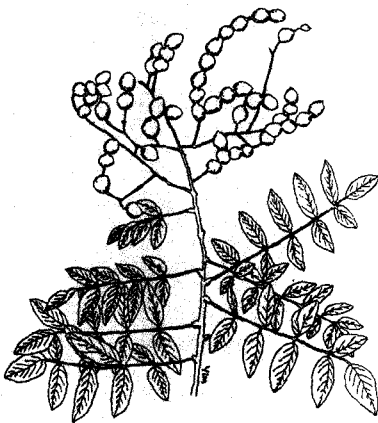
수종으로서 플라타너스가 있긴  
하다.

식물서적에 보면 이 나무에 대  
한 한자명은 대단히 많다. 그 중  
대표적인 한자명을 들어보면 괴  
(槐)자이다. 이 글자는 회로도 읽  
을 수 있다. 책에 보면 槐자의 음  
은 회(回), 또는 회(懷)에 통한다  
고 했다. 그래서 槐木으로 써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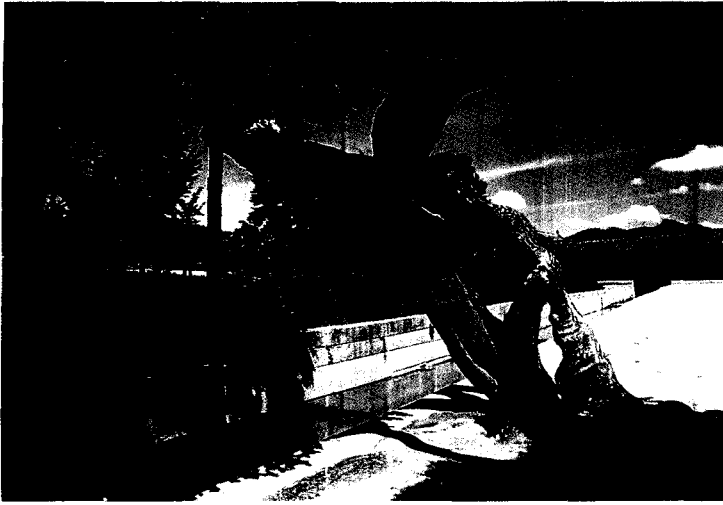
회나무로, 나아가서 회화나무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회화나  
무의 이름으로는 귀목(鬼木), 괴  
화수(槐花樹), 회목(槐木) 등이  
있다.

유희의 물명고(物名考)에 「槐」  
는 「槐」와 같은 글자로서 읽은 고  
삼(苦參)에 닮았으나 매우 큰 나  
무로서 줄기 껍질은 검고 꽃색은  
노랗고 열매는 구슬모양인데 우  
리말로는 회화나무라 했다. 물명  
고에나 본초강목에나 낮에는 잎  
이 모이고 밤에 열리는 것을 특히  
수궁괴(守宮槐)라 한다했다. 수  
궁괴는 회화나무의 한 변종인 것  
을 말하고 있다. 또 유희는 槐를  
느티나무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  
이라고 했다.

이 나무에 대한 영명을 파고다  
쥬리(pagoda tree) 또 스칼라 쥬  
리(schola tree)라고도 한다. 학명  
이 소포라 자포니카(Sophora



▲회화나무의 잎과 열매(필자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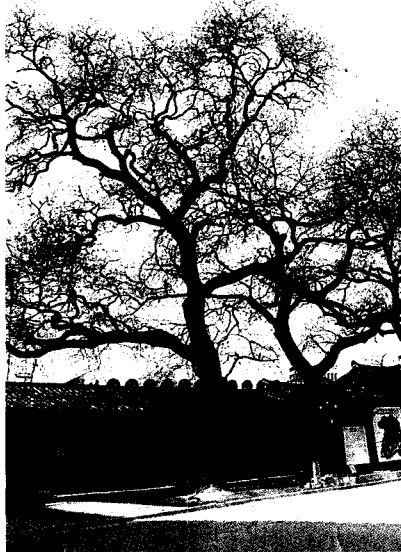


▲어렵게 살아가는 회화나무. 창경원 1993. 7

japonica)인데 속명을 따서 그대로 "소포라"라 해도 이 나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본명은 엔쥬(Enju)이다.

회화나무의 잎은 기수우상복엽(奇數羽狀複葉)으로 얼핏 아카시아에 많이 닮아 있다. 잎 뒤에 가는 털이 있다. 8월쯤 한 여름에 노란 빛이 도는 꽃을 피운다. 나무치고 더운 여름철에 꽃을 다는 것은 흔하지 않는데 회화나무는 열기의 생리를 즐긴다. 그간 할 일 없이 쉬고 있던 꿀벌들이 이거 웬 일인가하고 심심풀이처럼 회화나무로 나들이를 한다. 즐고있는 꿀벌을 불러내는 회화나무꽃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본다. 누구를 위해서 한 여름에 꽃을 흘리는가 말이다. 더불어 살아가자고 회화나무는 꿀을 흘리는 것이다.

회화나무는 중국원산의 수종이라 한다. 양자강, 황하유역에 자



▲서울공안에는 회화나무가 많다. 창덕궁 1992. 2. 26

생종이 있고 그 이복의 것은 식재한 것이라 한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 북경)에는 특히 이 나무가 많다. 베이징의 가로수, 풍치수는 회화나무가 그 대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 3. 귀한 나무, 회화나무

중국에서는 지난날 회화나무를 귀한 나무로 취급했다. 중국의 주(周)나라시대에는 조정에 3공(三公)의 회화나무(槐)를 심고 이것을 3공(三公)의 위계(位階)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3공이라 하면 조선조시대의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으로 해석된다. 중국에서는 3공을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로 했고 일본에서는 좌대신(左大臣), 우대신(右大臣), 내대신(內大臣)으로 해석했다. 회화나무를 이처럼 귀한 자리의 나무로 취급하게 된 것은 「槐은 황중에 美를 간직하고(懷) 있어서 그러하다.」라고 했다. 황(黃)은 색깔 중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색으로 해석하는데 그러한 색깔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서 이 나무는 3공의 위계(位階)를 상징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 한다.

본초강목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어서 흥미를 돋구워 준다. 「三槐를 바라보면서 3공은 자리에 앉게 된다.」또 「槐의 뜻은 「懷(생각할 회, 마음 속에 품을 회)」이다. 즉 사람들이 이 나무를 마음에 품고 그리워한다는 풀이이다.

모두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나무라면 그만일 뿐이다. 또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槐의 뜻은 귀(歸)이고 예전에는 회화나무를 심고 그 나무 아래에서 다투는 사람

의 송사를 듣고 정(情)을 실(實)로 돌렸다(歸)는 것이다. 재판을 하는 데에는 정을 떠나 엄정하게 사실(實)을 따져서 그러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돌린다(歸)는 것이다. 회화나무(槐)가 진실로 돌아가게 하는(歸) 기능을 가진 나무의 뜻 풀이로 연결된 것이다.

樹槐聽訟其下，槐之言歸也 情見歸實也

이래서 회화나무는 그 정직성과 성실성의 상징으로 말미암아 더욱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된 것이다.

#### 4. 묘지에 심었던 나무

회화나무는 또 묘지 곁에 심는 나무로 이해되었다고 한다. 즉 槐자는 귀신(鬼) 나무(木)라고 파자(破字)할 수 있다. 그리고 귀신 귀(鬼)자는 또 밭 전(田)자와 사람인(人)으로 파자할 수 있다. 田이란 들판을 뜻한다.

중국에 있어서는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시체를 관에 넣은 채로 받침대에 올려놓고 땅 속에 묻지 않았다. 이것을 장(葬)이라고 한다. 그 뒤 부인이 죽게 되면 비로소 함께 이것을 땅 속에 묻는다. 이것을 염장(斂葬)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귀신 귀(鬼)자는 죽은 시체가 들판에 놓여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鬼는 죽은



▲중국의 수도, 북경에는 회화나무가 많다. 1989. 8

자의 영혼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영혼 옆에 심어주는 나무가 곧 회화나무(槐)이다. 그래서 회화나무는 묘지의 나무로 풀이된다.

#### 5. 좋은 곳에 심어진 나무

우리나라에서는 덕수궁, 창경궁 등 궁궐 안에 큰 회화나무가



▲회화나무의 옛그림(本草綱目)

많은 편이다. 이것은 존귀한 자리의 나무로 해석해서 심어준 것으로 안다. 3공(公)을 3괴(槐)로 말하기도 하고 조정을 괴정(槐庭)으로 말하기도 하니 이해가 간다. 이러한 풍습은 일본에도 그대로 전해졌다. 일본의 작정기(作庭記)라는 책에 다음이 있다.

「회화나무는 문 주변에 심도록 한다. 장관(대신) 집의 문에 이 나무를 심어 괴문(槐門)으로 말하도록 한다. 장관들은 백성을 잘 따르게 해서(懷 하여서) 임금을 잘 모시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 우리나라, 일본 공통으로 회화나무에 대한 인식이었다고 보여진다.

#### 6. 회화나무의 시

회화나무는 중국에 있어서 지난날부터 수도(首都)에는 특히 즐겨 심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당



▲궁궐에 어울리는 회화나무. 창경궁 1993. 7. DBH 1.5m(추정)

나라시대 왕유(王維)의 시의 구절에 다음이 있다. 당시 지방장관들은 해마다 10월에 수도로 가서 천자를 만나고 각종 일들을 보고했다. 일들이 끝나면 천자는 제후를 모아 연회를 베풀고 시도 지은 모양이다. 이때 왕유가 화답하는 시를 지어 바쳤는데 그 일부분에 회화나무가 등장한다.

원문은 생략하고 풀이만 해본다.

모든 제후가 왕실을 우러러 보고

천자에 충성을 다짐한다.

천자는 옥의 수레를 타고

제후를 송별한다.

버들꽃 큰 길 위로 날고

회화나무 푸름은 물길을 덮었다.

楊花飛上路 양화비상로

槐色蔭通溝 괴색음통구

왕과 지방 제후들이 화려한 수도에서 화려한 송별연을 베푸는 마당에 도시림(都市林)으로 보이는 자연요소가 끼어들고 있는 것은 상황을 흥겹게 만들어 주고 있다. 흰색의 버들꽃과 푸른색의 회화나무 녹색이 대조를 이루어준다. 버들과 회화는 함께 종종 중국 옛서술의 나무로 잘 등장한다.

중국 당시에서 또 하나의 회화나무를 찾아본다. 이것은 8세기 후반에 이름을 떨친 곽자의(郭子儀) 장군의 옛집을 찾은 시인의 노래인 것이다.

문 앞의 산과 시내는 그대로인데

그의 호사했던 누각을 찾는다.

늙은 회화나무는 쓸쓸히

저물어 가는 햇빛에 쌓여있다.

門前不改舊山河 문전불개구산하

今日獨經歌舞地 금일독경가무지  
古槐疎冷夕陽多 고괴소랭석양다

[참고] 獨經(독경) : 혼자서 찾다. 歌舞(가무) : 곽자의가 세운 호화스러운 누각의 이름

지난날의 영광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갔고 남아있는 것이라고 늙은 회화나무의 쓸쓸한 모습 뿐이라는 극히 보편적인 역사의 운회를 묘사하고 있다. 왕유의 시에 나오는 회화나무는 영화의 절정과 함께 하고 있으나 이곳 누각, 가무의 나무는 응당 맞이해야 할 쇠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조가 된다.

사혜련(謝惠連)은 가을철의 회화나무를 잘 읊고 있다.

白露滋園菊 백로자원국

秋風落庭槐 추풍낙정괴

흰 구슬같은 이슬은 정원의 국화를 적시고

가을바람은 들에 서 있는 회화나무 잎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시에는 무언가 마음을 고요하게 잠재우는 정막이 있다. 잎이 떨어지면 회화나무는 역센 골격으로 가을의 깊음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 이처럼 회화나무는 시인과 문장가의 주변에서 흔하게 자라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